

지역 매아리

부안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부안군은 2018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388건, 10억 32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부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와 12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부과된다.

연납차량과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의 차량(경차, 화물차등)은 6월(제1기분)에 전액 과세돼, 12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1년 세액을 연납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으며 지난 2일 부터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 이전 차량은 내년 1월에 수시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미납으로 인한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민장학재단

지역인재 위한 장학금 줄이어

지역인재를 위한 장학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11일 사)전북육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지부장 김광수)에서 3백만원, 정읍시교육단체인 정읍NCC(대표이사 최성열)와 사)아이코리아 정읍시지회(지회장 양화자)에서 각각 50만원, 30만원의 장학금을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유진섭)에 기탁했다.

정읍NCC 최성열 대표회사는 "정읍지역의 기독교 단체로 활동하다가 단체가 전복됨으로 통합되면서 어려운 이웃과 우리지역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기로 회원들과 결정했다"며 기탁 소감을 밝혔다.

또한, 사)전북육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와 사)아이코리아 정읍시지회는 매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의 발전과 미래인재 교육에 대하여 힘쓰고 있다.

이날 유진섭 이사장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탁된 장학금은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다시 치솟는 고창' 본격 착수

군, 신규사업 국가예산 대거 확보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2019년도 국가예산 1170억원(총사업비 1조 1537억원 규모)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11일 밝혔다.

확보된 사업비 내역은 2019년 신규사업이 전년 대비 21%가 증가한 65건, 206억원(총사업비 2160억원)의 사업을 발굴·확보해 '농생명문화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도약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군 역점사업들의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관련 예산 1억5000만원을 비롯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수동지구' 설계비 5000만원(총사업비 30억원), 노동천과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7억원(총사업비 305억원)과 '고창지구 배수개선사업' 3억원(총사업비 18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장기 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고창읍 동산마을 일원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총사업비 142억원)됐고, 성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총사업비 40억원), 용기마을 어촌개발사업(총사업비 33억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국비확보로 탄력을 얻게 됐다.

농수산분야에선 스마트팜 보급사업(총사업비 30억원),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총사업비 14억원), 고구마 부가가치 창출 기공품 개발 보급사업(총사업비 4억원) 등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민선 7기 농생명분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지방하천정비 계속사업 4개소(고창천, 해리천, 칠암천, 주진천)와 신규 2개소(노동천, 강남천) 등 총 6개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 59억원(총사업비 1112억원)의 국비 반영이 확정됐다.

또 재해위험지구(고창, 만화, 금평지구) 정비사업 34억원(총사업비 419억원)이 내년 국비에 반영돼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과 이·치수가 조화되는 하천 만들기가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여기에 건강 한 수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고수천과 선운천 생태하천 정비사업비 44억원(총사업비 375억원)도 포함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청정

고창의 완성을 위한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 2억5000만원(총사업비 90억원), '운곡 탐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6억원(총사업비 72억원), '고창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및 갯벌식물원 조성사업' 12억원(총사업비 105억원), '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 2억5000만원(총사업비 97억원)을 확보해 친환경 생태도시의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3개소 39억2300만원(총 사업비 177억원)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4개 마을 7억원(총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해 농촌다움의 회복을 통한 공동체 문화형성과 거주민의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이밖에 '정보리활 생태관광지 연결도로 개설' 21억원(총사업비 51억원),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 10억원(총사업비 200억원) 등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도 확보됐다.

고창군은 2019년에는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20억원(총사업비 100억원)을 비롯한 '배드민턴 전용 구장 건립사업' 9억원(총사업비 50억원) 등 생활체육 주변확대를 위한 문화체육 기반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최근 초산동 관내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5개 단체협의회는 동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이웃돕기 성금모금 위한 '사랑나눔 일일차집'을 운영했다.

온정 가득한 초산동 "사랑과 나눔 실천해요"

관내 주민자치위원회, 이웃돕기 성금모금 위한 '일일차집' 운영

최근 초산동 관내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5개 단체협의회는 동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사랑나눔 일일차집'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자 관내 5개 단체를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 회원들과 주민 등 약 6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장은 어려운 주민들을 돕기 위한 마음이 한데 뭉쳐 화합을 도모하는 유익한 자리가 됐다.

특히 이날 유창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은 "저를 대신해 불우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몇 년간 돼지저금통에 모은 21만원의 성금을 기탁해 주변을 훈훈하게 했다.

윤복남 초산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한 톨, 두 톨 모아주신 것에 감명을 받았고, 다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돕기를 위해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과 함께 "금 번 일일차집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언론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여 초산동민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 통해 평생 건강 기틀 마련

정읍시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영양왕 선발대회 가져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는 11일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영양왕 선발대회-골든벨을 울려라!'를 실시했다.

영양플러스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대회는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올 한해 실시한 영양교육과 영양지식들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년센스 퀴즈와 함께 영양 O.X 퀴즈를 풀며 영양지식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를 가졌다.

이 날 퀴즈대회에서는 내장상동의 박선희 씨가 영양왕으로 선발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또한 퀴즈대회와 더불어 겨울철 감기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신·출산·



정읍시보건소가 11일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영양왕 선발대회-골든벨을 울려라!'를 실시했다.

수유부 및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을 통해 평생 건강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영양 위험요인인 신체계측, 빈혈, 영양섭취상태 검사 중 한 가지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자 중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 모집해, 월 2회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연중 보건소 영양플러스실 ☎539-6106로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신재생, 새만금 지렛대로 부안발전 이끈다

권익현 부안군수, 주요사업장·복지시설 방문 시민과 소통

권익현 부안군수가 민선7기 출범 이후 그동안 펼쳐온 정책들을 잘 관리하고 마무리하기 위해 신발끈을 다시 동여 메고 '유종의 미' 현장행정 대장정에 나섰다.

이번 현장행정은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권익현 부안군수가 주요사업장, 복지시설 등 32개소를 방문해 청년, 기업인,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발전의 공감대와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현 군수는 현장행정의 첫날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와 새만금 일원을 방문해 신재생 관련 사업과 새만금 내 추진되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하여 유관기관 관계자는 물론 담당 공

무원 등과 함께 논의했다. 권익현 군수는 "민선7기 부안군정은 아직 갈 길이 멀고 험하다"며 "새해 연초부터 시작해서는 늦고 올해 연말부터 한발 일찍 출발해야 한다"며 "신재생사업과 새만금을 지렛대로 삼아 부안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민선7기 출범이후 총 300억원 규모의 전북교육수련원 유치확정, 세계잼버리특별법 국회 심의통과, 국비 1012억원 규모의 새만금기력선착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굵직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 cartoon bear mascot, and several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smaller images of different wine bottles and gift sets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and alcohol content.